美 볼티모어 다리 붕괴…천문학적 보험액 가능성

2천명 생계 우려…보험액 5조4천억 전망
다리 재건에 수억 달러…10년 걸릴 수도

지난 26일(현지시간) 새벽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프랜시스 스콧 키 다리가 싱가포르 선적 화물과 충돌해 무너져 있다. 이 사고로 미국 최대 자동차 수출입항인 볼티모어항이 잠정 폐쇄됐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항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로 항만노동자 2천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으며, 보험사들이 많게는 5조원 이상의 보험액을 지급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제항만노동자협회(ILA) 볼티모어 지부장인 스콧 카원은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조만간 일자리가 사라질 ILA 노조원이 2천400명"이라면서 "이들이 급여를 받고 가족을 계속 부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우선 고려사항"이라고 말했다.

메릴랜드주 당국은 전날 새벽 볼티모어 항만을 가로지르는 다리인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리지'가 선박 충돌로 무너지자 항구 운영을 무기한 중단했으며, 일각에서는 5월까지 운영 중단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ILA 측은 연방정부 등과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며 메릴랜드주 의회도 이번 사고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 중이다.

카원 지부장은 하지만 "아직 명확한 답이나 길이 없다"면서 노동자들이 일용직인 만큼 항구가 문을 닫을 경우 생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 당시에도 물류가 멈추지 않았다면서 "이번과 같은 일은 겪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로 보험사들이 천문학적 보험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볼티모어항은 지난해 처리량 기준 미국 9위인 주요 수출입항이고, 사고로 인해 자동차를 비롯한 화물 물류에 지장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복수의 업계 인사를 인용해 아직 명확한 보험액을 추정하기는 이르지만 교량 붕괴, 물류 혼란, 인명 피해 등에 따라 보험사들이 거액을 지출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충돌이나 기름 유출 등 재난에 대비해 선박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관련, 사고 선박의 보험사인 브리타니아 P&I 클럽 측은 선박관리인 및 관계 당국과 사실 확인 및 대응을 위해 긴밀히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해상보험업계 관계자는 다리 붕괴를 포함해 이번 사고에 따른 책임보험 지급액이 기존 최고 기록인 2012년 코스타 콩코르디아 크루즈선 사고 당시의 1억달러(약 2조원) 규모와 비견할 만한 수준일 것으로 봤다.

신용평가사 모닝스타 DBRS의 마르코스 앨버레즈는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항만 봉쇄 기간 및 사업 지장에 대한 보상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험액이 20억-40억 달러(약 2조7천억-5조4천억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부동산·화물·해상·책임·무역신용 등 다방면에 걸쳐 손실 가능액을 평가하고 있으며, 수십억 달러 규모에 이를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또 연방정부가 부담할 예정인 교량 재건 비용은 6억 달러(약 8천억원) 정도라는 추산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다리 재건에 수억 달러의 비용과 수년간의 시간이 들 수 있다는 전문가 견해를 전했다.

해당 다리는 1970년대 건설 당시 5년에 걸쳐 현재 비용으로 환산해 3억1천600만달러(약 4천258억원)가 들었다.

존스홉킨스대 벤자민 W.셰이퍼 교수는 "상당수의 민간 인프라 건설을 겪어봤는데 10년 미만인 경우가 드물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독일 북부서 1.8t '블록버스터' 불발탄 발견

독일 북부 해역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이 투하한 것으로 추정되는 1.8t짜리 초대형 폭탄(사진)이 발견됐다.

NDR 방송에 따르면 독일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킬 당국은 최근 킬 협만에서 발견된 길이 2m짜리 불발탄을 26일(현지시간) 해체했다.

당국은 인근 도로와 선박 운항을 통제하고 주민 1천600여명을 대피시킨 뒤 크레인으로 폭탄을 끌어올려 해상에서 기폭장치를 제거했다.

이 폭탄은 2차대전 당시 연합국 일원으로 참전한 영국군의 HC4000 항공폭탄으로 무게가 4천파운드(약 1.8t)에 달한다. 압력파를 내는 방식으로 광범위한 피해를 입혀 '블록버스터'로도 불렸다.

이 폭탄은 최근 수십년 동안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에서 발견된 불발탄 가운데 가장 크고, 만약 폭발했다면 반경 2㎞ 지역에 피해를 줬을 것이라고 NDR 방송은 전했다. /연합뉴스

아이티 치안악화 부추긴 '美 총기'…장난감 포장에 밀반입도

텍사스 등지서 들여와…유엔 "전체 총기류, 50만정 추정"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의 치안 안정화를 위해서는 갱단의 손에 들려져 있는 미국산 총기류 압수와 밀반입 감시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과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최근 민권 운동가 알 샤프턴 목사 등과 함께 참석한 행사에서 "아이티 무장 갱단의 준동을 막기 위해서는 아이티로의 총기 유입을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총기 단속과 관련한 당국과 다른 연방 기관이 아이티로 향하는 총기 반입 흐름을 조사하게 할 의무가 있다"며 "아이티에서 벌어지는 일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무기 직접 생산 시설이 없는 아이티로의 총기 밀반입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다만, 요새는 전에 볼 수 없었던 전쟁용 고(高) 구경 무기들까지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게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우려 사항 중 하나다.

지난 1월 발표된 유엔 보고서를 보면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에는 AK47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소총, 기관총, 9㎜ 권총 등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모든 종류의 총기류가 넘쳐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총기류 규모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합법적 경로를 통해 취득한 것들을 포함해 50만정 안팎의 총기류가 아이티에 있는 것으로 유엔은 추산했다.

이들 무기는 주로 갱단과 연계된 미국 내 대리인들에 의해 해상·육상 화물에 숨겨져 아이티로 반입되는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발송 지역은 대체로 플로리다, 텍사스, 조지아 등 아이티와 가까운 남부 지역이다.

BBC는 과거 주요 항구에서 수시로 시행된 컨테이너 검사를 통해 장난감 포장이나 의류 더미 속에 총기류를 숨겼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고 보도했다.

아이티에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경찰과 갱단원 간 무력 충돌이 지속해서 보고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 8억명 굶주리는데…유엔 "매일 음식물 10억끼 버려"

전 세계 인구 중 8억명이 굶주리는 상황에서 매일 10억끼 분량의 음식물이 버려진다고 유엔환경계획(UNEP)이 전했다.

UNEP는 27일(현지시간) '음식물 쓰레기 지수 보고서'를 통해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1조 달러(1천350조원) 상당 이상의 음식물이 버려졌다고 밝혔다.

이는 식품 10억t 이상으로, 매일 10억끼의 식사를 만들어낼 물량이라고 UNEP는 설명했다. 8억명 이상이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매일 한끼 이상을 제공할 음식물이 낭비되는 셈이다.

보고서는 "매일 10억끼씩 버려진다는 수치는 매우 보수적인 추정치이며 실제 폐기량은 더 많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음식물이 버려지는 장소는 가정이 60%로 가장 많았고, 호텔·식당 등 서비스업소 28%, 정육점·식료품점 등 소매업소 12% 등 순이었다. /연합뉴스